

對페루 JICA 협력사업 현황

I. 사무소 설치 및 인력현황

- 1977년 사무소 설치, 현재 단독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중
- 사무소 인력은 13명(2명:JICA에서 파견, 11명: 현지 고용원/일본계 포함)

지원 집중 확대

- 1998년, 일본 경제협력 위원회, 페루 재정부 및 국제협력청간 공동 회의 개최, 중점 지원분야 선정
- 2003년, JICA 법적 지위 변경으로 보다 효율적, 독립적 사업추진 도모

II. 협력사업 추진 경과

- 1979년 기술협력 기본협정 체결
- 동 협정 하에서 1990년까지 연수생초청, 전문가·봉사단파견, 물자지원, 프로젝트사업 등 추진, 1990년 말에 중남미 지역 주요 지원 대상국으로 부상
- 1991년, 테러단체에 의한 3명의 일본인 전문가 피살 및 1996년, 일본 대사관 점거 사태 발생으로 파견 인력 철수 및 파견 중지, 연수생 초청 및 물자

III. 사업발굴 및 추진절차

- 사업발굴: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요청서 작성 등 사업발굴
- 추진절차
 - 통상 8월 말까지 페루 국제협력청으로부터 수요조사결과 접수(대사관이 접수)
 - 외무성·JICA 본부의 검토 하에 사업선정 및 국별 사업계획 수립, 3월중 각 사무소에 연도별 사업계획 통보

IV. 연도별 평균 지원규모(추정)

- 일본의 연 평균 지원규모 : 약 120백만불
 - JICA: 50백만불(기술협력 10백만불, 무상자금 협력 40백만불)
 - 차관 : 70백만불
- ※ 미국, EU에 이어 제3의 원조공여국

공동연수 프로그램 하에 제3국 초청

※ 2004년까지 연수생 초청인원은 약 4,000명

- 전문가파견: 34명
 - 4명은 장기(2년) 파견 전문가로 국제협력청(1명), 생산부(1명), 교육부 (2명)에서 활동 중, 2년간 연장 가능
 - 30명은 단기 파견 전문가로 파견기간은 2~3주에서 11개월, 30명 중 약 15명은 일본인 전문가를 파견하며, 잔여 15명은 아르헨티나, 멕시코, 미국 등 여타국 전문가를 활용

V. 중점지원분야(Sector)

- 중점분야: 빈곤퇴치, 사회인프라지원, 경제인프라 개선, 환경보호
-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
 - 빈곤퇴치: 의료보건여건 개선, 직업교육, 여성 개발
 - 사회인프라: 상하수도개선, 교육여건개선, 자연 재해예방
 - 경제인프라: 지방 전기설치, 중소기업육성, 농산물생산기술 향상, 어업개발, 관광개발계획, 수도권도로망정비, 물자원개발, 산업제도 정비
 - 환경보호: 환경보호, 환경오염퇴치
 - 기타: 민주화지원, 공공기관 능력강화

2. 물자지원: 100만불

- 사무소에서 입찰을 통해 물품 구매, 지원
 - ※ JICA가 실시하는 물자지원 외에 일본 대사관에서도 별도 자금으로 물자 지원 실시

3. 프로젝트: 20건

- 지원규모는 건당 약 100만불로 2~3년간 추진
- 건축공사의 시공업체는 일본인 건축업체 활용

4. 긴급재난지원

- 지원여부 및 규모는 외무성에서 결정
 - ※ 긴급재난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멕시코, 런던, 싱가포르에 물품보관창고 운영중, 중남미지역의 경우, 멕시코 물품보관창고를 활용

VI.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

1. 기술협력

- 연수생초청: 200명
 - 130명은 일본으로 초청, 70명은 주변국가와의

- 무상자금협력: 40백만불
- 통상 건당 10백만불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
- 금년 4개 프로젝트 추진중
 - 재활센터 건립, 페루·에쿠아돌 국경지역 교량 건설, 항만개선, 박물관 건립

VII. 시사점

- KOICA 협력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 규모 대비 지원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대 페루 원조계획 수립이 시급하며, 우리의 비교우위분야 및 BHN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.
-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우수사업 발굴 및 실질적인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, 사업별 모니터링 강화,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협력동향 파악과 자료 작성, 적기 사업 추진, 파견인력(66명) 관리 등 대 페루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파견 인력의 증원이 요망됨.
- 아울러, 프로젝트사업 대상국가에 대한 물자지원 예산 배정 및 요청 물자 현지 구입, 파견된 전문가를 통한 사업발굴, 공동 연수 확대 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[자료:주페루 KOICA사무소]